

# 안철수 “정치하게 되면 특정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겠다”

## 4·11 총선 보름 앞두고 공개강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4·11 총선을 보름 앞둔 2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공개강연을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소통과 공감’이란 주제의 강연이었다.

안 원장은 강연에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보수·진보가 너무 심하게 싸운다. 사회문제를 풀라고 국민이 권한을 줬는데 그게 자기들 것인 양 싸우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소속 정당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정치권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얼마 전 어떤 분

가장 큰 역할은 지금까지 머문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양쪽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쇄신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저의)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사회발전 역할만 하면 됐지 지지율은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서 그는 “내가 만약 긍정적인 발전의 도구로만 쓰일 수 있으면 설명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있는 분들이 잘해 주시면 나설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존 정치인이 잘못해서) 내가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어떤 특정한 진영논리에 기대지 않겠다”고 했다. 또 “공동체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삼는 쪽으로 하지 진영논리에 휩싸여 공동체 정치의 가치관을 저버리는 판단은 지금까지의 생각, 행보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대선 이야기가 너무 빠르다.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

안 원장의 발언은 설명 정치를 하더라도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특정 진영에 속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진영의 논리를 따라가진 않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그러나 진보 진영을 보수 진영과 동급으로 보면서 한꺼번에 비판한 것은 야권 차기 주자로 인식되어온 그간의 평가와는 거리가 느껴지게 한다. 그래서 ‘중도·무당파’를 향한 독자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됐다.

실제로 야권 주변에는 안 원장이 사석에서 “(상황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최근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이 한때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 “여론조사에서 FTA 찬성 응답도 상당하고, 반대하더라도 재협상하자는 쪽이 월등히 많은데 왜 폐기를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안 원장은 지난 4월에 보수층이 주도하는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 현장을 찾았고, 지난 12일 엔방송 3사 노조의 연대 파업 지지성명을 내는 등 양 진영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원보·이지상 기자 wonbosy@joongang.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소통과 공감’ 강연을 하기 위해 서울대 문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안성식 기자

내가 만약 정치 안 하겠다고 하면  
긴장하는 양당 옛날로 돌아갈 것

한국 보수·진보 너무 심하게 싸워  
최근 사석선 “상황 만들 수도 있다”

을 만났는데 그쪽 분(정치인)인 줄 몰랐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분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암담했다”며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문제를 풀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승리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해줬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지난해 여자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대물’도 거론하며 “왜 현실에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갈망이 시대정신에 반영돼 인기를 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에 이어 학생들과의 문답에서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물음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이랬다.

“...어떤 분들은 (요즘 지지율이 떨어지니) 우유부단하다는 표현도 쓰더라. 그러나 만약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떤가. 그동안 긴장한 ‘양당’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안심하고)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디에 참여한다고 해봐라. 그때부터 서로 싸우고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회발전 전에 긍정적 역할을 못한다. 제가 할 수 있는

## “전혜숙 공천 취소는 인권유린” 손학규, 노무현계에 불만 표출

민주통합당 손학규(사진) 상임고문이 노무현계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냈다. 그는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전혜숙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서울 광진갑 공천 취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확실을 넘어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신고만 하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확정된 공천을 자르느냐, 서로 음해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세력’이 들이밀고, 그 혼란을 어찌 감당할 것이냐”면서다. 손 고문이 말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세력’은 당의 주류로 부상한 ‘범(汎)

4년 전 손 고문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제가 공천을 해보지 않았느냐.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도 한다”면서 “공천은 워낙 어려운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손 대표가 임명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지역구 공천에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당내 실세들을 ‘제거’ 하다시피 했고, 비례대표를 선발할 때는 ‘계파 안배’에 치중한 공천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08년 비례대표 공천 때 (내가) 몇 자리를 구민주당계에 떼어준 적이 있어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공천에서 지도부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한국노총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에게 대해선 날을 세웠다. 손 고문은 박 위원장이 “이번 총선은 이념 투쟁이나, 민생 우선이나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말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박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실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만일 새누리당에 의해 정권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이명박 정권과 박 위원장의 연정(聯政)”이라고 규정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 “박근혜, MB와 차별성 강조해도

### 지난 4년 실정 책임서 못 벗어나”

노무현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천이 취소되고, 김한길 후보가 투입된 데 대해 선대위원장 임명 거부 등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손 고문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그는 “우리가 지금 권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세(勢)도 좀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한이 맺혀서 한풀이 정치를 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도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는 오직 국민이 잘 살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천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있지만

www.unist.ac.kr

World Top 10 University by 2030

# UNIST

Toward  
A World-Leading  
University

과학벨트 D.U.P 연합 캠퍼스 구축  
UNIST, DGIST, POSTECH 2017년까지 1조 5,000억원 지원

4+1 이공계특성화대학 세계적 연구거점 육성지원(교과부)  
UNIST, KAIST, GIST, DGIST + POSTECH

### 2012학년도 UNIST 후기 대학원 학생선발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마감 (<http://adm3.unist.ac.kr>)  
후기 1차 : 2012년 5월 4일(금) 까지

### 우수 대학원생 지원프로그램

- Nine Bridges Fellowship (3년간 9,000만원 지원)
- R&D Fellowship (해외석학 공동지도 프로그램 : Nobel R&D / Star R&D)  
대상 : 우수 박사과정 학생   특정 : 해외 석학과 UNIST 교수가 논문/연구 공동지도
- Global Ph.D. Scholarship 선발(한국연구재단)
- 입학생 전원 RA/TA 장학금 (등록금 전액 및 생활지원금)

기술경영대학원 학생모집  
ECTFE 프로그램  
(에너지 상용분야 특화 금융공학)  
접수 : 4.16(월)~30(월)

